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11, pp. 607-614, 2021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1.19.11.607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임상실습만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조영미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Young-Mi Cho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nmo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임상실습만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전라지역 소재 M대학의 4학년 간호대학생 15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전공만족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r=-.356, p<.001)이 있었지만, 임상실습만족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18, p=.825).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β=0.285, p<.001), 성적(β=0.250, p=.001), 전공만족(β=-0.331, p<.001)이었고 설명력은 25.3%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전공만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며 나이와 성적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전공만족, 임상실습만족, 취업, 스트레스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find out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job-seeking stress. For this study, from May to June 2021, 152 4th grade students were participated from M University in Jeolla-do Province,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reveal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on major satisfaction(r=-.356, p<.001), bu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as not((r=-.018, p=.825). Also, the factors affecting the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were age(β=0.285, p<.001), G.P.A.(β=0.250, p=.001) and major satisfaction(β=-0.331, p<.001) with a total explanatory power of 25.3%.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decrease the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programs to increase major satisfaction, and also the programs should be considered the nursing students' ages and G.P.As.

Key Words :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Job-Seeking, Stress

*Corresponding Author : Young-Mi Cho(choyoung23@sunmoon.ac.kr)
Received August 5, 2021 Revised September 6, 2021
Accepted November 20, 2021 Published November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2021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청년층 실업률은 10.0%로 2020년의 9%에 비해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1]청년 실업은 우리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 실업률과 맞물려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어려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들에게도 보이고 있는 현상이며, 취업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나 자살생각과 같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2-5].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부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취업이 되고, 현재의 간호사 부족 현상으로 인해[6] 취업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다고 생각되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일반대학생들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7-10]. 간호대학생들에게 취업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을 떨어뜨리며[11], 자아탄력성에도 부정적인 상관을 보이며[12], 자아존중감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이처럼 간호대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전공 만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간호대학생들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전공만족은 자신의 전공을 공부하면서 전공공부를 통한 욕구가 충족됨에 따라 느껴지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13]. 이러한 전공만족은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14,15] 또한 전공만족이 간호대학생의 직업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16] 이러한 전공만족이 간호사가 되어서도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더하여 선행연구에서 전공만족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10,17]. 이렇듯 전공만족은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한 요소이므로 전공만족의 정도와 전공만족도와 상관이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

간호대학생에게 임상실습은 전문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필수적으로 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ONE)[18]있다.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들에게 간호사가 되기 위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적 역량을 개발하고 간호전문직에 대한 전문직관과 직업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데 중요하다[19]. 이러한 임상실습을 통한 실습만족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에 영향을 주며[16,19,20] 간호대학생의 소진을 감소시키며[21]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주고[22]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23]알려져 있다. 이렇듯 임상실습만족은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되고 있으나 정확하게 임상실습만족이 취업스트레스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밝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임상실습만족,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더불어, 전공만족, 임상실습만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임상실습만족,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 임상실습만족,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임상실습만족,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 임상실습만족,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공만족과 임상실습만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전라지역 M대학교 4학년 간호대학생 1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은 임상실습의 경험이 성인간호 모든 파트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었다. 기관의 허락을 받기위해 학과장과 면담학고 학과의 승인을 얻은 후, 구글 설문지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 및 동의서 작성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여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자료에 대한 비밀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설문의 결과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과 연구종료와 함께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학생 대표를 통해 4학년 학생 200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만 설문지를 제출하였다.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에게 지속적인 권유는 없었다. 표본의 크기는 인 G*Power 3.1.9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중간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그리고 예측변수를 10개를 지정하였고 최소한의 표본수는 147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152명으로 조건에 충족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전공만족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하혜숙[13]이 대학생을 위해 제작한 전공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교육만족 5문항, 관계만족 4문항, 일반만족 5문항, 인식만족 7문항, 학교만족 7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로 1='전혀 아니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의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 α=.9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94 이었다.

2.3.2 임상실습만족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결자와 강현숙[24]이 개발하고 이순희, 김숙영, 김정아[25]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실습내용 9문항, 실습지도 9문항, 실습환경 7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평가 3문항으로 총 31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순희, 김숙영, 김정아[2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7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7 이였다.

2.3.3 취업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취업스트레스 척도는 정의석과 노안영[26]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로, 심리내적 측면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여 문항들을 구성했다. 미취업에 대한 불안, 취업에 대한 자신감 상실,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정서 등을 15문항으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1='전혀 아니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에서 Cronbach α=.89였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만족, 임상실습만족, 취업스트레스의 특성에 대하여 서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 임상실습만족, 취업스트레스의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전공만족, 임상실습만족, 취업스트레스의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취업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3.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남녀 비율은 남학생이 22명(14.5%)이었고, 여학생이 130명(85.5%)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5.77±6.93세였고 20-25세가 가장 높은 비율(68.4%)을 차지하였다. 성적은 학점이 3.0-3.5사이의 학생이 56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3.5-4.0사이의 학점을 가진 대상자가46명(30.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94명(61.81%)으로 가장 많았다. 형제수를 묻는 질문에 1명이 95명(62.5%)로 가장 많았고, 두 명이 36명(23.7%)로 그 뒤를 이어 많았다. 주거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대상자가 82명(53.9%)로 가장 많았고, 자취를 하는 대상자가 35명(23.0%)이었다. 전공 선택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대상자가 65명(42.8%)으로 취업의 용이라고 응답한 대상자(42.1%) 보다 한명 더 많았다. 경제 상태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 115명(75.7%)로 가장 많았고 어려운편이라고 말한 학생이

Table 1. Differences in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2)

Variables	Categories	N(%)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Job-Seeking Stress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22(14.5)	3.65(0.61)	0.48(0.49)	3.29(0.56)	0.93(0.34)	2.77(0.77)	0.03(0.86)
	Female	130(85.5)	3.75(0.58)		3.44(0.65)		2.74(0.71)	
Age	20-25	104(68.4)	3.74(0.58)	0.92(0.40)	3.47(0.68)	2.32(0.10)	2.88(0.69)	6.37
25.77±6.93	26-30	26(17.1)	3.60(0.58)		3.17(0.43)		2.55(0.59)	(<0.00)
	above 30	22(14.5)	3.82(0.60)		3.45(0.59)		2.36(0.83)	
G.P.A	below 3	24(15.8)	3.56(0.46)	0.99(0.40)	3.33(0.63)	1.70(0.17)	3.23(0.81)	4.62
	3.0-3.5	56(36.8)	3.77(0.67)		3.55(0.73)		2.69(0.69)	(<0.00)
	3.6-4.0	46(30.3)	3.73(0.58)		3.39(0.56)		2.66(0.63)	
	above 4.1	26(17.1)	3.82(0.46)		3.25(0.51)		2.59(0.69)	
Religion	christian	29(19.1)	3.82(0.58)	0.41(0.75)	3.36(0.59)	0.47(0.70)	2.81(0.62)	3.58(0.02)
	buddhist	17(11.2)	3.80(0.45)		3.51(0.64)		2.58(0.86)	
	catholic	12(7.9)	3.69(0.85)		3.26(0.80)		2.17(0.54)	
	None	94(61.8)	3.70(0.57)		3.44(0.63)		2.83(0.71)	
Siblings	Alone	5(3.3)	4.04(0.70)	1.58(0.18)	3.85(0.40)	2.05(0.09)	3.04(0.40)	0.88(0.48)
	1	95(62.5)	3.65(0.60)		3.32(0.63)		2.74(0.69)	
	2	36(23.7)	3.83(0.48)		3.59(0.65)		2.80(0.81)	
	3	10(6.6)	3.82(0.72)		3.31(0.63)		2.71(0.74)	
	4 more	6(3.9)	4.05(0.30)		3.65(0.45)		2.29(0.75)	
Living	with parents	82(53.9)	3.69(0.64)	0.90(0.44)	3.37(0.62)	1.05(0.37)	2.79(0.70)	4.41(0.01)
	dormitory	25(16.4)	3.78(0.37)		3.35(0.55)		2.96(0.74)	
	alone	35(23.0)	3.73(0.53)		3.48(0.69)		2.70(0.65)	
	etc	10(6.6)	4.00(0.67)		3.71(0.72)		2.04(0.64)	
Major choice	for will	65(42.8)	3.85(0.52)	2.42(0.09)	3.38(0.62)	0.25(0.78)	2.61(0.68)	2.50(0.09)
	recommand from others	23(15.1)	3.60(0.59)		3.41(0.61)		2.96(0.63)	
	easy to get jobs	64(42.1)	3.66(0.62)		3.46(0.66)		2.81(0.77)	
Economic status	Low	26(17.1)	3.67(0.61)	0.63(0.53)	3.32(0.48)	0.73(0.49)	2.67(0.82)	0.72(0.49)
	Middle	115(75.7)	3.73(0.59)		3.42(0.66)		2.78(0.70)	
	High	11(7.2)	3.90(0.43)		3.60(0.73)		2.55(0.61)	

26명(17.1%), 풍요로운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1명(7.2%)이었다. Table 1

3.2 대상자의 전공만족, 임상실습만족, 취업스트레스의 정도

Table 2. Level of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n=152)

Variables	M±SD	Ranges
Major Satisfaction	3.73±0.58	1-5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3.41±0.63	1-5
Job-Seeking Stress	2.74±0.71	1-5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의 정도는 5점 만점에 3.73±0.58점이었고, 임상실습만족의 경우 5점 만점에 3.41±0.36점으로 나타났다. 취업 스트레스의 정도는 5점 만점에 2.74±0.71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 임상실습만족, 취업스트레스의 차이

취업 스트레스는 나이(F=6.37, p<0.00), 성적(F=4.62, p<0.00), 종교(F=3.58, p=0.02), 주거형태(F=4.41,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임상실습만족은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3.4 대상자의 전공만족, 임상실습만족, 취업스트레스의 관계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는 전공만족(r=−.356, p<.001)과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임상실습만족(r=−.018, p=.825)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지 않았다. Table 3.

Table 3. Correl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n=152)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Job-Seeking Stress
	r(p)	r(p)	r(p)
Major Satisfaction	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512** <.001	1	
Job-Seeking Stress	−.356** <.001	−.018 .825	1

3.5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변수입력 방법은 입력(Enter method)을 사용하였고, 회귀 모형은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전공만족과 일반적 사항에서 취업스트레스와 유의했던 나이, 성적, 종교, 주거형태를 포함하여 구축하였다. 나이, 성적, 종교, 주거형태는 더미 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에서 Darbin-Watson통계량은 1.873로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공차한계(Tolerance)는 0.982-0.999였으며, 분산팽차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VIF]) 값은 1.001-1.018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나이, 성적, 그리고 전공만족에 의하여 25.3%로 설명되었으며(F=18.035, p<.001) 회귀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나이(β=−0.275, p<.001), 성적(β=−0.250, p=.001), 그리고 전공만족(β=−0.333, p<.001)임을 확인하였다. 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 임상실습만족,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공만족과 임상실습만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그 기초자료로 삼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성별, 연령, 학점, 종교, 형제 수, 주거방식, 전공선택 이유, 경제상황과 같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과 임상실습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취업스트레스의 경우 나이, 성적, 종교, 주거방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7]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 보다 더 취업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이했고, 간호대학생의 경우[10,12] 성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같았다. 일반적 사항에서는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적인 변수를 고려했을 때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의 정도는3.73±0.58점으로 중간보다는 높은 정도였다.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3.81±.62[15] 그리고 3.99±.95로[27] 나타나 본 연구의 정도보다 높았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3.80±.61[10]로 본 연구보다 그 정도가 높았으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3.71±.53[28]로 본 연구보다 낮은 정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만족의 정도는 3.60±1.02[7], 3.37±.64[29], 3.32±.71[30]로 보고되어 대체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의 정도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n Job-Seeking Stress

(n=152)

Variables	B	SE	β	t	p	R^2	Adj R^2	F(p)
(Constant)	3.902	.340		11.460	<.000			
Age (20-25)	.439	.108	.285	4.050	<.000	.268	.253	18.035 (<.000)
G.P.A (below3.0)	.492	.139	.250	3.530	.001			
Major Satisfaction	−.411	.088	−.333	−4.686	<.000			

Reference Group: Age*above 30, Grad*above 4.1

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학과의 교육의 양은 방대함과 실습의 부담감과 같은 요소들이 있을 지라도 현재 청년층의 취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간호사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아진 결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임상실습만족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전공만족은 임상실습만족과는 양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선행연구에서도[16,27] 전공만족과 임상실습만족은 양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같았다. 임상실습 만족이 직접적으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전공만족을 위한 고려사항이라 판단되며, 본 연구의 결과 전공만족을 높임으로 취업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임상실습만족은 3.41±0.36점으로 중앙값 3점을 넘는 정도였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에서 임상실습만족의 정도는3.42±.46[16], 3.46±.55[31], 3.55±.61[21]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보다 높았다. 이러한 임상실습의 정도가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임상실습의 불투명 속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바와는 다르다. 더욱이 본 연구의 결과 임상실습만족은 취업스트레스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상실습만족이 전공만족에 양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임상실습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계속적으로 임상실습의 만족이 간호대학생의 어떠한 측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취업스트레스는 2.74±0.71점으로 중앙값 3보다 낮은 정도를 보여 주었다. 취업스트레스의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에서[7]에서 2.87±.66,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값 2.87±.55[9]보다 낮은 정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는 전공만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에서[7] 전공만족은 취업스트레스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같았고, 양승애[8], 김경남, 강은희[10]의 연구에서 역시 전공만족은 취업스트레스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과의 경우 대학 졸업 후 간호사로 취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공의 만족이 취업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사항 요인으로는 나이와 성적이 있었다. 나이의 경우 어릴수록 더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았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간호사의 취업의 용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공만족도를 꾸준하게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전공만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전공만족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은 입학 후부터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여준 나이대별 또는 성적별 전공만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4학년이 되어 취업시기가 왔을 때 취업스트레스를 줄여 간호대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과 임상실습만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줄이는 요소를 확인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여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전공만족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었지만 임상실습만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취업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간호학과 입학부터 계속적인 전공만족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학과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도 제한점은 있다. 본 연구는 일개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 간호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지역별 학생들을 위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data, economically active census, 2021(2).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

[2] E. Y. Kim & H. S. Yu (2018). A Comparative Study of the Stressors, Stress Management Behaviors, and the Behavior Contents among Korean, Japanese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4(1), 193-211. DOI : 10.24159/joec.2018.24.1.193

[3] E. S. Bea & H. S. Kang (2018).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Family Function, and Job-Seeking Stress on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2(4), 181-192.
DOI : 10.21184/jkeia.2018.6.12.4.181

[4] J. S. Noh & S. M. Park (2018).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Call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9(2), 67-82.
DOI : 10.15703/kjc.19.2.201804.67

[5] Y. J. Lee & W. Y. Choi (2020). The Effects of Job-seeking Stress on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entrapment -.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0(2), 111-128.
DOI http://dx.doi.org/10.35273/jec.2020.10.2.006

[6] Y. R. Chin & M. H. Kwon (2021). Contents Analysis on the Media about the Working Conditions of Nurs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6(2), 109-117.
DOI : 10.9708/jksci.2021.26.02.109

[7] B. Jeong, S. H. Ahn & Y. J. Oh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Friends·Seniors Support -.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1(1), 159-181.
DOI : 10.35273/jec.2021.11.1.007

[8] S. A. Yang (2017). Convergence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171-183.
DOI : 10.22156/CS4SMB.2017.7.4.171

[9] E. K. Ahn (2018).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on Senior Nursing Students' Job Seeking Stress-Perspectives of Converg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6), 365-372.
DOI : 10.15207/JKCS.2018.9.6.365

[10] K. N. Kim & E. H. Kang (2020).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ppearance Satisfaction in Major on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3), 80-88.
DOI : 10.5762/KAIS.2020.21.3.80

[11] S. H. Han & S. H. Park (2019). Effecting Factors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2), 675-686.
DOI : 10.35873/ajmahs.2019.9.2.066

[12] S. H. Choi (2019).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ppearance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on Nursing Students' Job Seeking Stres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3), 386-393.
DOI : 10.5762/KAIS.2019.20.3.386

[13]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4] Y. M. Cho & J. K. Kim (2019). The Influence of Sense of Humor by Instructors and Learning Motivation upon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9(1), 350-358.
DOI : 10.5392/JKCA.2019.19.01.350

[15] Y. M. Cho (2020).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n Professional Self-Concept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7), 665-673.
DOI : 10.5392/JKCA.2020.20.07.665

[16] M. R. Lee & M. J. Kim (2018). The Influences of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Practice on Vocat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6), 197-208.
DOI : 10.5762/KAIS.2018.19.6.197

[17] J. H. Lee & H. J. Jang (2018). Influence of the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on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and Public Health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Oil & Applied Science*, 35(2), 454-462.
DOI : http://dx.doi.org/10.12925/jkocs.2018.35.2.454

[18] Korean Accrodi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ONE, (2014)

[19] M. K. Jeon & M. S. Kim (2017).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 40-48.
DOI : 10.5762/KAIS.2017.18.1.40

[20] E. H. Gil (2018). Affecting Factors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13(1), 43-51.
DOI : 10.15715/kjhcom.2018.13.1.43

[21] H. J. Park & Y. R. Yeom (2021). Factors Affect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5), 66-73.
DOI : 10.22156/CS4SMB.2021.11.05.066

[22] K. S. Cho (2020).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7(2), 142-152.
DOI : 10.5953/JMJH.2020.27.2.142

[23] S. A. Ahn & J. H. Kong (2021). The Study on the Subjective Happiness, Perceived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1), 54-61.
DOI : 10.22156/CS4SMB.2021.11.01.054

[24] K. J. Cho & H. S. Kang. (1984).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4(2), 63-74.
URL http://www.kan.or.kr

[25] S. H. Lee, S. Y. Kim & J. A. Kim. (2004).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0(2), 219-231.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41296

[26] E. S. Jeoung & A. Y. Noh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depression, self-esteem and physic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 center, 33(-), 85-101.

[27] E. S. Ju, Y. S. Bang & E. J. Oh (2020).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Healthcare-Related Major o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Level -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4(6), 243-250. DOI : 10.21184/jkeia.2020.8.14.6.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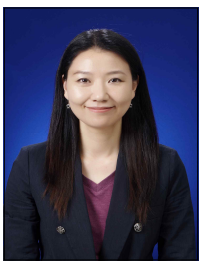
[28] Y. J. Kim (2020).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Communication Skills,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4(8), 265-276. DOI : 10.21184/jkeia.2020.12.14.8.265

[29] A. S. Park & H. K. Kim (2016).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and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2), 511-519. DOI : http://dx.doi.org/10.5762/KAIS.2016.17.2.511

[30] S. E. Heo (2016). Convergence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Service Experienc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4), 85-96. UCI : G704-SER000004000.2016.7.4.012

[31] Y. S. Seo & C. Y. Jeong (2020).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ing Image and Self-Esteem on Vocational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8(1), 1377-1385. DOI : http://dx.doi.org/10.15205/kschs.2020.06.30.1377

조 영 미(Young-Mi Cho) [정회원]



- 2002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4년 12월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Master's of Nursing Science)
- 2019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노인간호, 한방간호
- E-Mail : choyoung23@sunmoon.ac.kr